

# 국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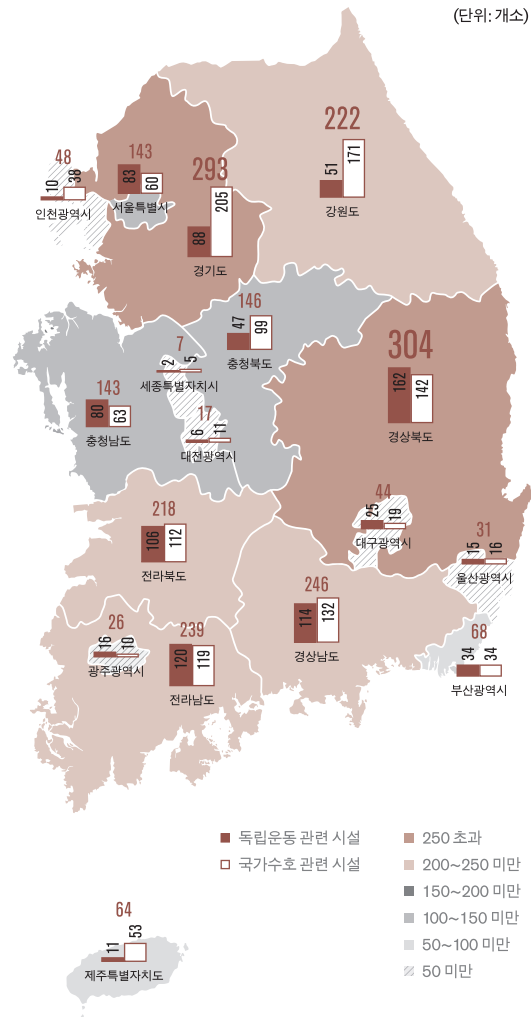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은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Q** 전국에 현충시설은 얼마나 지정되어 있을까?

(단위: 개소)

**A** 총 2,259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02년 1월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및 건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기준 국내 현충시설은 총 2,259개소, 국외 현충시설은 1,386개소가 지정되었다. 주제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되며 국내에 지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총 970개소, 국가수호 관련 시설은 총 1,289개소로 집계되었다. 형태에 따라 비석·탑·동상·조형물·기념관·사당·생가·공원·장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현충시설은 비석 및 탑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생가 및 공원은 전국적으로 50개소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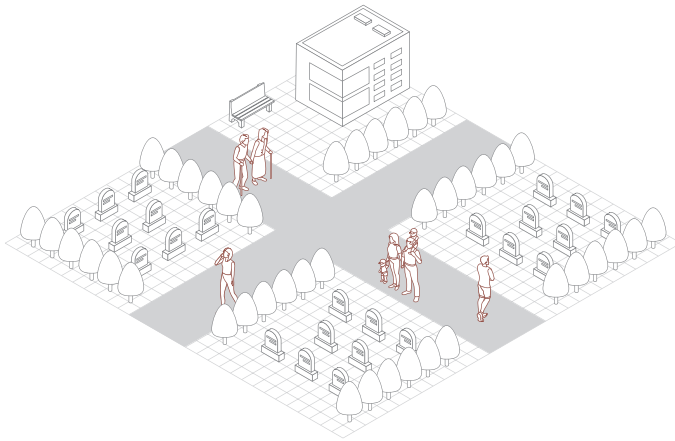


\* 현충시설(顯忠施設)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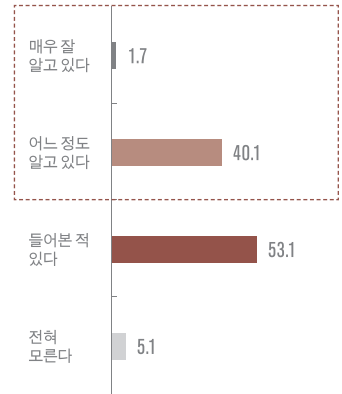
① 국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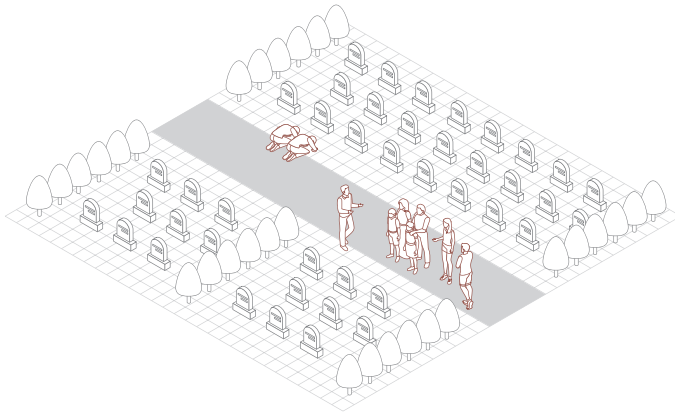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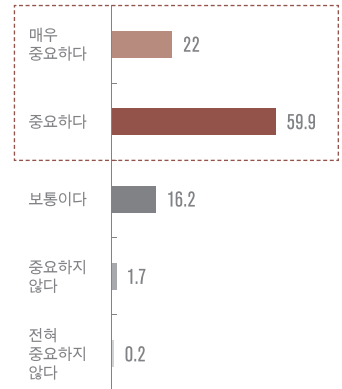
단순인지를 제외한 인지도 41.8



중요성에 대한 인식



중요성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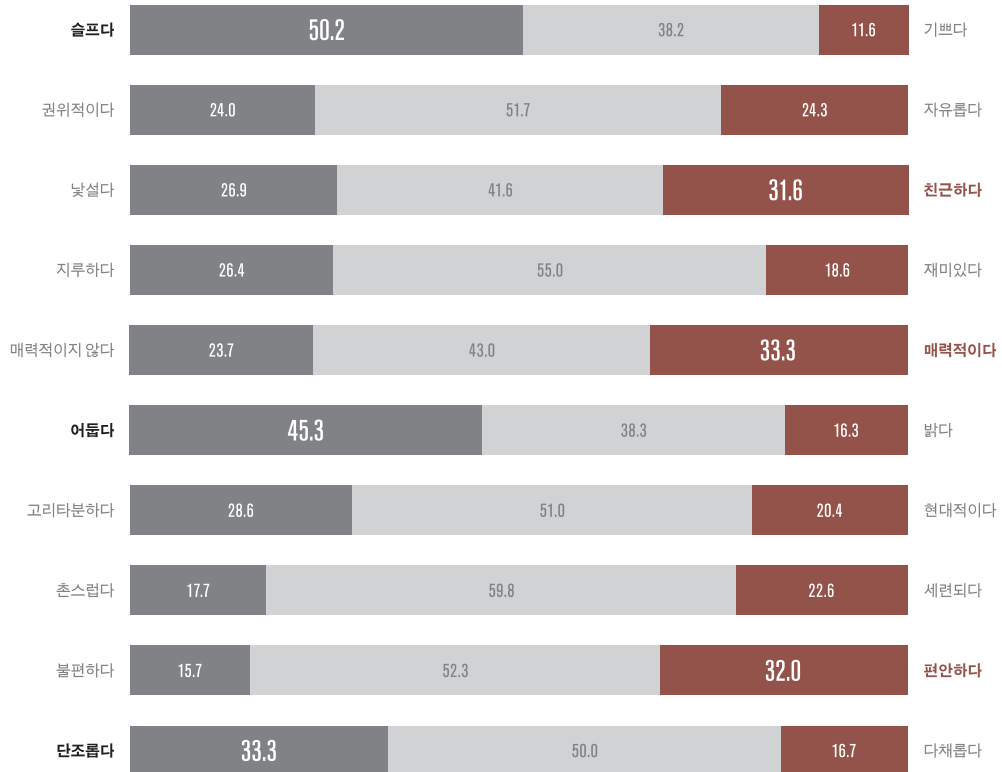
▲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단순 인지를 제외한 인지도는 41.8%

평소 현충시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1.8%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이 '들어본 적 있다'로 응답하여 현충시설에 대한 단순 인지도가 높았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현충시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81.9%로 높게 나타났다. 현충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현충시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단위: %)

■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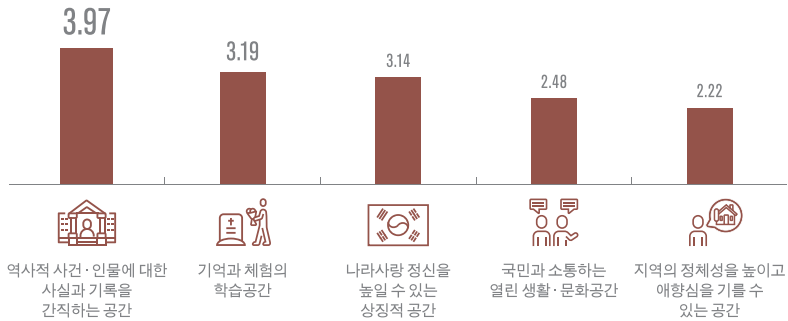


A '슬픈', '어두운', '단조로운' 이미지가 강하며, 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

국민들은 현충시설을 떠올렸을 때 '슬프다'와 '기쁘다' 중 '슬프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50.2%, '어둡다'와 '밝다' 중 '어둡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45.3%, '단조롭다'와 '다채롭다' 중 '단조롭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3.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현충시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떠올리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친근하다'와 '낯설다' 중 '친근하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1.6%, '매력적이다'와 '매력적이지 않다' 중 '매력적이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3.3%, '편안하다'와 '불편하다' 중 '편안하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2%로 파악되어,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Q 현충시설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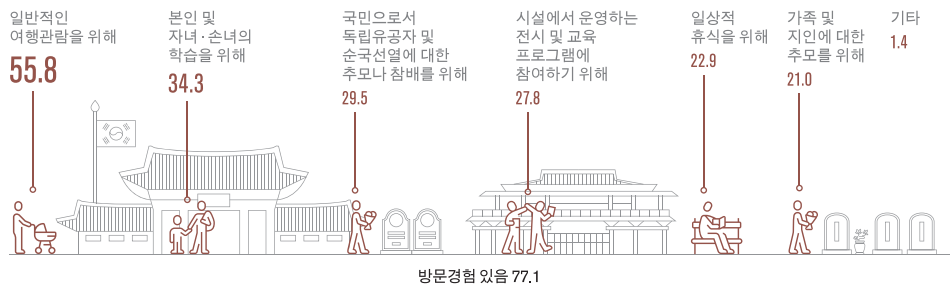


A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며, 특히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을 중요시

국민들은 제시된 다섯 가지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 모두에 70% 이상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현충시설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모두 고루 수행했으면 하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3.97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3.19점)이나 '상징적 공간'(3.14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애항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2.22점)으로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Q 현충시설을 얼마나 방문하며, 무엇을 위해 방문하는가?

(단위: %)



A 평균적으로 5년에 3.3회 방문하며, 일반적인 여행관광을 위해 현충시설을 찾음

최근 5년 동안 1 회 이상 현충시설을 방문한 경우는 응답자의 77.1%이다.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여행관광을 목적으로 현충시설을 찾는 경우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충시설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인 및 자녀·손녀의 학습을 위해' 또는 '국민으로서 독립유공자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나 참배를 위해'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비율도 각각 34.3%와 29.5%로 높게 나타났다.